

인용표지의 연결어미적 기능

구 종 남 (전북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간접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과
통사, 의미적 특징 |
| 2. 간접인용 표지의 연결어미적 용법 |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간접인용 표지 ‘-다고’, ‘-라고’, ‘-자고’, ‘-냐고’ 등 간접인용 표지들의 연결어미적 용법과 의미 기능, 그리고 이들이 이루는 구문의 몇 가지 통사적, 의미적 제약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 표지들은 인용동사를 취하여 인용문을 구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용법이지만, 인용동사를 취하지 않고 연결어미처럼 후행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는 이 경우 이들이 연결어미적으로 쓰인다고 보고 이들의 의미 기능과 구문상의 특징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간접인용 표지가 어떤 구조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는 인용적 형식동사이었던 ‘ㅎ-’의 활용형 어미이었던 바, 피인용문의 각 문장형 종결어미가 중화된 종결어미 ‘-다’, ‘-냐’, ‘-라’, ‘-자’와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간접인용 표지들은 내재적으로는 연결어미적 의미를 갖지 않는데도 연결어미적 용법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접인용 표지들이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될 때 이들의 의미 기능은 문맥적 추론에 의해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본고에서 밝혀진 각 인용 표지들의 중요한 의미 기능을 요약하면, ‘-다고’는 이유, 의도/목적, 양보, ‘-라고’는 의지/목적, ‘-자고’는 의도/목적, ‘-냐고’

는 이유 등이다. 이들 표지들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인칭, 문장 유형, 시제, 주어, 서술어 등에서 제약을 보인다.

주제어 : 간접인용 표지, 중화된 문말 어미, 내재적 의미, 문맥적 추론,
연결어미

1. 서론

이 논문은 국어의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의 연결어미적 기능을 밝히고 이들이 쓰이는 구문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있다. 국어의 간접인용 표지 ‘-고’는 실제로 피인용문 문장형의 각 종결 어미가 중화된 형태인 ‘-다’, ‘-냐’, ‘-라’, ‘-자’ 와 결합된 형태로 쓰인다. 이들은 간접인용의 내포문을 도입하는 전형적인 인용 표지이지만 연결어미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인용 표지의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그 결과 이들 형태가 어떻게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게 되고, 이들의 의미 기능은 무엇이며 이들은 어떻게 파악되는지, 나아가 이들 어미들이 쓰이는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은 무엇인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들 형식이 연결어미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접속문과는 달리 선행절과 후행절이 직접적인 의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는 이들 형식이 연결어미처럼 쓰여도 기본적으로는 선행절이 인용문적인 성격을 지닌 문장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형식의 연결어미로서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를 인용 표지로 하는 간접인용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접인용에서는 피인용문이 수행역양 없이 도입되는 바, 그렇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인용 표지 ‘-고’가 피

인용문의 종결어미에 결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접인용 표지가 후행의 인용동사 없이 연결어미처럼 쓰여도 피인용 발화가 전제될 수 있는 이유는 ‘-고’ 때문이다. 이런 기능을 가진 ‘-고’의 기원과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만 연결어미로 쓰이는 이들 인용 표지들의 용법과 의미 기능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어미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 보이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미 관계가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들 어미의 형성 과정과 구문적 특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형태의 연결어미로서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에는 이들 표지가 인용 표지로서 접속 구조에서도 기본적으로 인용문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이들 형태가 연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할 때는 각 표지별로 여러 가지 통사, 의미적 제약을 보인다. 이는 이들이 기원적으로는 인용 표지라는 사실과 이들은 각 문장형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형식으로 나타나는 피인용절의 종결어미를 포함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간접인용 표지 ‘-고’의 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각 피인용절의 문장형에 따라 쓰이는 ‘-다고’, ‘-냐고’, ‘-라고’, ‘-자고’의 연결어미적 기능을 확인한 뒤, 이들 어미의 연결어미로서의 구체적인 의미 기능과 이들이 쓰이는 구문별로 보이는 통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간접인용 표지의 연결어미적 용법

2.1. 간접인용 형식과 인용 표지

인용을 원화자의 말(피인용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원화자의 말을 그 자체로 전달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인용의 상황에서 인용화자의 관점에 맞게 조정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Quirk et. 1985, 채숙희 2011). 원화자의 말을 인용의

발화 상황에서 인칭이나 시칭, 지시 표현 등 여러 가지가 조정되며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은 인용 표지에서 차이를 보인다(채숙희 2011: 16).¹⁾ 주지하다시피 국어에서는 직접인용 표지로 ‘-라고’와 ‘-하고’가, 간접인용 표지로는 ‘-고’가 쓰인다.

직접인용에서는 원발화가 그대로 인용된다는 점에서 피인용문에 다양한 종결어미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간접의문문에서는 문장 유형에 따라 원발화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형태가 ‘-고’와 결합되어 나타난다. 국어에는 원래 인용 표지가 존재하지 않았는 바, 인용과 관련해서 인용 표지는 현대국어의 특징이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용 표지가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 그 과정이 거의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간접인용 표지 ‘-고’는 피인용절 뒤에 나타났던 ‘ㅎ고’의 ‘-고’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보는 데 이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여러 인용 방식이 있었는 바,²⁾ 간접인용 표지 ‘-고’는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³⁾

(1) (화자) - (청자) - 피인용문 - ㅎ고 - 인용동사

위에서 ‘ㅎ고’는 피인용절 상위동사로 나타난다. 이때 ‘ㅎ고’는 이에 후행하는 인용동사에 때문에 잉여성을 띠게 된다.⁴⁾ 그 결과 ‘ㅎ-’가 탈락하게 되

1) Aikehnvald(2008: 410-417)에서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구분하는 범언어적 기준 10가지를 들고 있다(채숙희(2011: 13-14)에서 재인용).

2) 이에 대해서는 김봉천(2001: 69) 참고.

3) 이필영(1993: 37)에서 간접인용 표지 ‘-고’는 원래 피인용절의 상위동사였던 ‘하-’에서 ‘하-’가 탈락되어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와 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4) (1)에서 ‘ㅎ- + 접속어미’ 뒤에 인용동사가 이어지는 구조는 인용동사의 중복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구성에 대해 의아해 할 수 있다. 이는 중세/근대국어에 번역문에 나타나는 (화자) - (청자) - 인용동사 - 피인용문 - ㅎ- 구성이 존재하는 바, 이 때 ‘ㅎ-’는 대동사적 성격을 띤다. (1) 형식은 이런 구조에서 인용동사가 ‘ㅎ-’ 뒤로 자리를 옮겨 나타나는 형식이다. 이렇게 되면 ‘하-’는 인용의 형식

고 ‘-고’는 호주(host)를 읽게 됨으로써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와 융합되어 나타난다. 요컨대 현대국어에서 간접인용 표지 ‘-고’는⁵⁾ 피인용문 각 문장형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어미와 통합된 형식 ‘-다고’, ‘-냐고’, ‘-라고’, ‘-자고’로 나타나는 바, 이들 형식은 융합으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2.2. 간접인용 표지의 접속 기능

간접인용 표지는 피인용절을 이끄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이들 표지가 인용동사와 함께 내포문으로 파악되는 인용문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표지들은 인용문으로 해석될 수 없는 구문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 표지가 쓰인 구문이 간접인용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용의 개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인용문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인용동사라고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용동사의 존재 여부에 의해 인용문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다. 인용은 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인용동사의 범위도 결정된다.⁷⁾

간접인용 표지는 인용동사를 상위동사로 하여 피인용절을 이끌어 인용문을 이루는 것이 전형적인 용법이다. 그러나 이들 표지들은 인용동사 없이 사용되기도 한다. 즉, 이들 표지 뒤에는 인용동사가 아닌 다른 절이 올 수 있다.

(2) 가. 밖이 시끄럽다고 미자가 문을 닫았다.

나. 한쪽에 있으면 어떻게 찾겠냐고 엄마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동사가 되며 결과적으로 잉여성이 발생한다고 된다고 할 수 있다(김봉천 2001 참고).

5) 간접인용 표지의 ‘-고’의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김봉천 2001: 45, 이금희 2006: 236).

6) 인용문 형식의 전반적인 문법화 과정에 대해서는 이금희(2006) 참고.

7) 인용을 누군가의 말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느냐 생각까지를 전달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용동사의 범위가 달라진다. 인용동사의 유형에 대해서는 남기심(1973), 신선경(1986), 이필영(1993), 채숙희(2011) 등 참고.

- 다. 동생한테 주라고 미숙이가 음식을 싸 주었다.
 라.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자고 각자가 자기 음식값을 냈다.

특히 구어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이들 예문에는 간접인용 표지가 쓰였지만 인용동사가 이어지지 않는다.⁸⁾ 그리고 이들 문에서는 인용문의 필수적 요소인 원청자가 설정될 수 없다. 또한 이들 표지에 이끌리는 피인용절은 이전에 발화되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나, 이들 발화의 전달 상황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인용동사가 쓰일 때의 피인용 발화와는 다르다. 이들 문장에는 인용동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발화의 수행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위 인용표지들이 이끄는 절은 직접적인 피인용절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이들 문장은 내포문 구성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간접인용 표지가 직접적으로는 인용과 거리가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장이 인용의 내포문이 아니라면 접속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용 표지들은 접속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2)에 쓰인 표지들에 대해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들 문장은 다른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일 때처럼, 인용 표지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문장과 이에 후행하는 두 문장이 나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그러나 인용표지 뒤에 문종결의 수행 억양이 놓이지 않고, 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과 후행절 간에는 연결어미에 의해 연결되는 문과 같이 두 절 간에 관계적 의미가 드러나므로 이들 인용 표지들이 종결어미로 쓰였다고 할 수 없다.¹⁰⁾ 인용 표지가 이렇게 연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는 이미 중세국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간접인용 표지들이 접속어미적 기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들 어미들의 연결어미적 의미 기능에

- 8) 피인용문이 약속법인 경우에도 ‘내일 가마고 엄마가 아이를 달랬다.’에서 보듯이 이런 용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고’는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이 제한적이어서 지면상의 제약상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9) ‘-다고’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유현경 2002), 이의 의미 기능 전반에 대한 논의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냐고’, ‘-라고’, ‘-자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전에서의 연결어미로 기술된 것은 ‘-다고’뿐이다.
 10) 또한 이들 표지들은 다른 연결어미처럼 종결어미적 용법도 갖는다.

대한 연구는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거나 전무 상태다.

이들 표지의 의미 기능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연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접속문으로 해석되는 (2)와 같은 문장에서 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은 기본적으로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¹¹⁾ 이는 이들 표지에서 ‘-고’는 기원적으로는 인용동사 ‘하-’의 활용어미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표지가 이끄는 절이 발화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문장도 기원적으로는 인용 구조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와 같은 문장을 인용동사가 후행하는 인용문을 가진 접속문이라고 보면, 이 문장은 인용동사 ‘하-’가 연결어미를 취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

(3) 피인용절 - 인용표지 - 인용동사 + 연결어미 - 후행절

여기서 문제는 이 구성에서 동사 ‘하-’의 연결어미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이다. (2)에서 피인용문은 후행절 주어의 발화 내용이고, 후행절은 피인용문 발화 뒤에나 동시에 이어지는 후행절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2 가)에서 미자가 문을 닫는 행위를 한 것은 밖이 시끄럽다고 발화한 후의 일이나 동시의 일이 된다. 따라서 선행하는 인용절과 후행하는 절을 시간적 나열관계로만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하-’는 ‘-고’나 ‘-며’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2 가, 나)를 위의 구조에 맞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된다.

(4) 가. 밖이 시끄럽다고 하고/하며 미자가 문을 닫았다.

나. 한쪽에 있으면 어떻게 찾겠냐고 하고/하며 엄마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2 가, 나)는 인용구조로 환원한 (4 가, 나)와 별다른 의미 차이를 보이지

11) 후술되듯이 모든 간접인용 표지가 이루는 구문에서 발화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히 (2 가, 나)를 (4 가, 나)와 동일한 구조로 보아 (2) 유형의 구문을 (3)과 같은 구조에서 인용동사가 생략된 구조로 볼 수 없다. (2)는 발화의 수행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¹²⁾ 또한 (2)에 나타나는 간접의문 표지에 이끌리는 절이 모두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³⁾

간접의문 표지에 의한 구문들에서 이들 표지에 이끌리는 절이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도 이들을 인용 구조 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간접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은 그 자체로 후행절과 관계적 의미를 맺는다고 보아야 하는 바, 결국 이들 표지들은 문법화되어 연결어미적으로 쓰이는 용법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간접인용 표지에 의한 접속문이 인용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간접인용 표지에 의한 접속문은 인용문의 구조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이들 표지들이 완전히 문법화되어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개별 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뒷받침될 것이다.

여기서 (2)에서 간접인용 표지가 연결어미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때 이들이 어떤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간접인용 표지들의 형성 과정과 연결어미적 용법이 이런 방식에서 이해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형식은 자체가 내재적으로는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음

12) 예컨대 인용 발화에서는 피인용문의 발화 시간이 명시될 수 있으나 (2)와 같은 접속문 구조에서는 발화 시간이 명시될 수 없다.

가. 열 한 시에 엄마가 밖이 시끄럽다고 (말)하고 문을 닫았다.

나. 열 한 시에 엄마가 밖이 시끄럽다고 문을 닫았다.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열 한 시가 발화시로 해석되지 않는다.

13) (2)의 간접의문 표지에 이끌리는 절도 발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상정 가능할 수 있다. (2 라)가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자고, 각자가 자기 음식값을 낼 거야’로서 종결 형식이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로 바뀌면 ‘-자고’에 이끌리는 절은 각자의 생각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발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명백하다. 즉, (2)의 기원적 구조를 고려할 때 후행절은 선행절 발화 뒤나 동시에 일어나는 주어의 행위라고 하면, 연결어미적으로 이들 표지들이 나타내는 의미 관계는 인용된 발화와 그 발화에서 기인하는 후행절 주어의 행동 간의 관계적 의미에 의해 파악되어야 한다.¹⁴⁾ 따라서 선행절에 기초한 후행절 주어의 행동이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어떤 관계로 추론되느냐에 따라 이들 표지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등이 내재적으로는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 문맥에 따라 선/후행절 간의¹⁵⁾ 관계적 의미가 추론된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

간접인용 표지에 의한 접속문에서 보이는 특징이나 제약은 기원적으로 바로 이런 구조상의 특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구문에서의 주어 조건, 서법 제약, 의미 관계의 특징 등은 바로 이들 표지들의 기원적 속성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개별 간접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과 이들이 이루는 접속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 간접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과 통사, 의미적 특징

3.1. ‘-다고’

3.1.1. 서술문의 종결어미가 중화된 ‘-다’에 간접인용의 ‘-고’가 결합된 ‘-다고’는 인용 표지로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며 연결어미로서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제 ‘-다고’의 의미 기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것이 이루는 구문의 통사, 의미적 특징과 제약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고’에 대한 논의 방식은 다른 간접인용 표지의 의미 기능과 이들 구문의 특징에 대한

14) 뒤에서 논의되겠지만 간접인용문 표지에 의한 접속문에서는 후행절이 반드시 선행절에 기초한 후행절 주어의 행동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15) 여기서 선행절이라 함은 간접인용 표지가 이끄는 절을 의미한다.

논의 방식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고’가 연결어미적으로 쓰이는 전형적인 예들은 (5)와 같은 유형이다.

- (5) 가. 날씨가 덥다고 선회가 상의를 벗었다.
나. 머리가 아프다고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인용표지 ‘-다고’가 인용동사를 갖지 않아서 접속문 형식으로 파악되는 이들 문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용문적 성격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구체적인 발화 상황은 드러나지 않지만 (5가), (5나) 모두에서 후행절 주어가 각각 ‘날씨가 덥다’, ‘머리가 아프다’는 내용의 발화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후행절은 이 발화와 계기나 동시적 관계로 해석된다. 따라서 (5)는 기원적으로 인용과 관련되는 구문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바, (4)에서와 같이 (5)를 ‘-다고’에 이끌리는 절과 후행절을 시간적 관계만을 고려하여 제시하면¹⁶⁾ 역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¹⁷⁾

- (5') 가. 날씨가 덥다고 하고/하며 성회가 상의를 벗었다.
나.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하며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하-’를 상정한 (5')에서 피인용 발화의 주체는 후행절의 주어로서 이 주어는 선행절 발화의 이후나 동시에 후행절 행위를 수행한다. 여기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된 별개의 사태로 인식되지 않는 한, 그래서 단순히 계기나 동시로만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한, 후행절 주어의 행위는 인용된 발화 내용과 의미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후행절 주어의 행동은 선행절에서 동기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들 간의 의미 관계

16) 선행절과 후행절의 시간적 연결은 ‘-면서’, ‘한 후’, ‘한 뒤’, ‘하고 나서’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는 ‘하-’의 생략 문제까지를 염두에 두고 ‘-고’, ‘-며’만을 제시한다.

17) 후술되듯이 모든 ‘-다고’의 문이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5)와 같은 문장이 (5')에서 직접 ‘하고’ ‘하며’ 등이 탈락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는 문맥적 추론으로 파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들 표지들의 형성 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 간접의문 표지 자체에는 연결어미로서 내재적 의미를 갖지 않으므로 이들은 문맥적 추론에 따라 다양한 관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고’ 구문에서는 발화된 선행절의 내용으로 인하여 후행절의 주어의 행동이 결과되는 바, (5 가)에서는 선행절의 발화 내용이 후행절 주어의 행동의 동기로 파악된다. 즉, 날씨가 더운 것은 성호가 옷을 벗은 것의 동기로 파악되며, (5 나)에서 정선이가 머리가 아픈 것은 약을 먹은 것의 동기로 파악된다. 여기서 동기가 되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논리적으로 추론되는 구체적인 관계 등 정보를 고려하면 (5)에서 ‘-다고’가 나타내는 의미 관계가 이해된다. 즉, (5)에서 선행 발화와 후행절은 계기나 동시로 나타난다는 정보, 후행절 화자가 그 행위를 행하는 것은 선행절 발화가 동기라는 정보, 두 행위 간에 추론되는 논리적 추론 정보 등에 기초한 문맥적 추론에 의하면 ‘-다고’는 이유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⁸⁾

그러나 ‘-다고’ 절이 후행절에 대한 이유를 나타낸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아서’와 같은 접속어미가 나타내는 이유와는 다르다. 이 문제를 예문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6) 가. 찌개가 쉰다고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

나. 먼지가 들어온다고 선회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18) ‘-다고’가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 A: 영희가 왜 찌개를 냉장고에 넣었니?

B: 찌개가 쉰다고.

(2) A: 엄마가 왜 문을 닫았니?

B: 먼지가 들어온다고.

예에서 보듯이 선행 화자의 ‘왜’로 묻는 질문에 대해 ‘-다고’가 쓰일 수 있는 바, 이는 ‘-다고’가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6 가)에서 음식이 쉬는 것과 엄마가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것과의 관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선행절은 후행절 주어 행위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6 나)에서도 벌레가 들어오는 것은 선회가 문을 안 여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고’ 구문에서 문맥상 추론되는 이유 관계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직접적으로 파악되는 전형적인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아서’의 이유 관계와는 다르다. 위의 ‘-다고’의 경우는 선행절 발화 내용이 동기가 되어 후행절 행위를 수행하며 이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는 문맥적 추론에 의해 파악되므로 ‘-다고’가 나타내는 이유는 전형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의 이유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7) 가. 찌개가 {쥔다고, *쉬어서}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

나. 먼지가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엄마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위에서 보듯이 이유를 나타내는 ‘-다고’는 전형적인 이유의 연결어미 ‘-아서’와 교체될 수 없다. 이는 이들이 이유를 나타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 (6)에서 후행절 화자는 선행절의 사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후행절의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선행절은 구체적인 동기가 된다. 그런데 인용동사의 설정 가능성 여부를 떠나 (6)에서는 선행절이 피인용 발화로 제시되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직접적으로 맺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 선행절은 발화된 문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녀 후행절과 인용적 매개체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 행위 간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고’는 내재적으로 이유의 의미를 갖는 ‘-아서’와 교체가 불가능하다. 내재적인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지 않아 두 사태 간의 이유 관계가 문맥적으로 추론되는 경우와 선/후행절 간의 이유 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다른 것이다. 요컨대 관계적 의미 측면에서 (5, 6)에서 ‘-다고’의 연결어미로서 의미 기능은 후행절 화자가 후행절 행위의 이유로 파악하는 절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고’가 이유를 나타낼 때 (5, 6)과는 달리 항상 ‘-다고’가 통합된

절이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 (8) 가. 나이가 들었다고 철이 들었다.
나. 봄이 왔다고 날씨가 제법 따뜻하다.

위에서 보듯이 ‘-다고’에 이끌리는 절은 실제로 발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예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인용 구조로 바꾸어 두 문장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다고’가 의미 기능상의 변화를 일으켜 연결어미로 굳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문법화되었음을 뜻한다. 인용 구조의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5, 6)과 같은 구문에서 ‘-다고’를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유도 위와 같은 경우의 ‘-다고’의 용법에 근거한다.¹⁹⁾

3.1.2. ‘-다고’의 의미가 문맥적 추론에 의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이유 관계만 존재하지 않을 것임이 쉽게 짐작된다.

- (9) 가. 동생한테 준다고 정선이가 스카프를 샀다.
나. 휴가 때 읽는다고 수정이가 책을 한 권 샀다.

(9)에서도 발화가 전제되는 이들 문장도 이유의 경우와 같이 ‘하고’, ‘하며’를 설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절이 계기나 동시로 해석되는 이들 문장은 후행절의 주어는 본인의 발화인 선행절이 동기가 되어 후행절의 행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두 절의 시차 관계, 동기, 두 절 간에 상정 가능한 의미적 관계 등을 근거로 문맥적 추론을 하면, 이 경우 ‘-다고’는 의도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²⁰⁾

19)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연결어미로서의 ‘-다고’가 ①앞 절의 일을 뒤 절 일의 까닭이나 근거로 들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②흔히 속담과 같은 관용구를 인용하면서 ‘그 말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기술되어 있다.

20) ‘-다고’가 목적이라는 관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9)에서 ‘-다고’의 의도/목적 관계 의미가 인용된 발화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이때도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도/목적 관계는 직접적이 아니고 문맥적 추론에 기초한 관계가 되므로 ‘-다고’ 구문은 의도/목적을 나타내는 ‘-려고’와는 차이를 보인다.

- (10) 가. 그는 집에 {간다고, *가려고} 나갔으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나. 그는 학교에 {간다고, *가려고} 나갔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갔다.

‘-다고’가 목적을 나타낼 때도 선행절은 발화적 성격을 지녀 후행절과 인용이라는 매개에 의해 연결되므로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는 문맥적 추론에 의해 간접적으로 맺어진다. 따라서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려고’와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3.1.3. ‘-다고’는 그 자체로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며 후행절과의 관계적 의미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다.

- (11) 가. 내가 졌다고 밥을 사야겠어.
나. 내가 잘못했다고 그냥 말아야겠어.

위 예들은 ‘-다고’ 자체가 피인용문을 제시할 뿐,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특별한 관계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동사가 개입될 수 있다.

예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 A: 동수가 무슨 목적으로 등산화를 샀냐?
B: 산에 갈 때 신는다고.

위에서 ‘-다고’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쓰이는 바, 이는 ‘-다고’가 목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 (12) 가. 내가 졌다고 하고 밥을 사야겠어.
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말아야겠어.

(12)도 후행절 주어인 화자가 먼저 선행절을 발화한 후 후행절을 발화하는 구조인 바, 인용절과 후행절은 특별한 논리적 관계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11)에서는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다고’가 이끄는 절과 후행절이 순차적으로만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11)은 인용 구조적 성격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1)의 선/후행절이 단순한 계기적 연결만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다고’는 선행절 발화 내용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다고’의 이런 기능은 피인용 발화를 이끄는 기능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4. ‘-다고’가 이유나 의도/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다고’에 이끄는 절이 피인용문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발화가 가정될 수 있는 경우였다. 이제 다음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 (13) 가. 바람이 불었다고 과일이 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나. 약을 먹었다고 감기가 금방 낫지 않는다고.

(13)에서 ‘-다고’가 결합된 절은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고’의 의미는 인용동사의 설정을 통하여 이해될 수 없다. 이때 ‘-다고’는 기본적으로 앞의 경우와는 달리 단순히 피인용문을 제시하는 기능을 넘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13)에서 ‘-다고’는 문맥상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고’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다고’가 내재적인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기대 부정이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불면 과일이 떨어진다는 기대가 일반적인 기대이나 과일이 떨어지지 않은 사태가 오면 이는 기대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13)에서 ‘-다고’에 의해 이들 기대 부정의 두 사태가 연결됨으로써 양보 관계가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다고’가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인용동사 ‘하-’의 생략과 관련된다고 볼 가능성도 제시될 수 있다. 앞서 ‘-다고’ 구문은 기원적으로는 인용동사가 존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았는 바, ‘-다고’가 이유나 의도/목적 등을 나타내는 경우 인용동사에 결합되는 ‘-고’, ‘-며’ 등을 통하여 인용절과 후행절이 나열의 의미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13)과 같이 ‘-다고’가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 경우는 인용동사 ‘하-’를 설정할 경우 이에 나열의 연결어미가 아니라 양보의 연결어미 ‘-아도’가 결합된 ‘해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14) 가. 바람이 불었다고 해도 과일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나. 약을 먹었다고 해도 감기가 금방 낫지 않았다.

위의 경우에는 ‘하-’ 동사를 가정해도 ‘-다고’가 이끄는 절이 발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발화자도 설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구조로 이해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고’에 이끌리는 절은 추상적 차원에서의 발화로 가정될 수 있다. 그 결과 이 추상적인 발화를 가정하는 ‘해-’와 자연스럽게 공기한다고 할 수 있다. (14)에서 양보의 의미는 ‘-아도’에서 기원되는 것으로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는 (13)을 ‘해도’가 생략된 (14)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냐는 것이다.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다고’가 문맥적으로 추론되는 관계적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는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13)을 ‘해도’와 같은 동사의 활용형이 생략된 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13)에서의 ‘-다고는 인용표지에서 더 문법화되어 연결어미로 쓰이게 되는 경우로 본다. ‘-다고’는 이 경우 문맥상 추론인 기대 부정에 의해 양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3.1.5. 한편 ‘-다고’는 그 자체로 인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15) 가. 얇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고) 그 애가 그럴 줄 몰랐어.

나.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고) 말조심해야 한다.

위 예에서 ‘-다고’는 인용동사 없이 쓰여도 속담이나 격언 등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말(표현)을 인용하는 기능을 한다.²¹⁾ 이 경우를 생각하면 앞서 확인되었듯이 발화문의 구체적 발화 상황은 나타낼 수 없으나 간접인용 표지가 인용동사 없이 인용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된다.²²⁾ 이는 인용 표지의 구성 요소에 의해 예측되는 것이다.

3.1.6. ‘-다고’는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될 때 여러 가지 통사, 의미적 특징을 보인다. 이는 ‘-다고’가 기원적으로는 인용 표지이며 인용 구조와 관련되어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된다. 이제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는 ‘-다고’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고’가 이유를 나타낼 때 문장형에서 제약을 받는다.

(16) 가. *출다고 들어가라/들어가자.

나. *찬바람 들어온다고 문을 닫아라/닫자.

위에서 보듯이 ‘-다고’가 이유 관계를 나타내면 의문법은 가능하나 명령이나 청유 등의 문장 유형은 불가능하다. ‘-아서’의 경우 선행절이 이유를 나타낼 때 이들 문장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유의 ‘-다고’ 구문에서는 현재시제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주어가 일 인칭이 될 수 없다.²³⁾

21) ‘-다고’가 그 자체로 인용문을 도입한다는 사실은 이유,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다고’가 인용동사 없이 쓰여도 피인용 발화가 전체된 사실과 통한다.

22) (12)의 예처럼 인용 발화를 제시하나 후행절과 순차적 나열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이런 유형과 통한다.

23) 앞서 보았듯이 ‘-다고’에 의해 이끌리는 절은 후행절 행위 이전이나 후행절 행

(17) 가. 나는 옷이 {*없다고, 없어서} 파티에 못 갔어.

나. 나는 {*바쁘다고, 바빠서} 서울에 못 가.

‘-다고’ 구문에서 일인칭 주어의 행위와 관련된 발화를 인용 형식으로 선행시키고 후행절 행위를 제시하는 경우,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문맥적 추론을 통해 이유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접속문에서의 ‘-다고’의 기원적인 의미 기능의 발생을 고려할 때, 후행절의 일인칭 주어가 이유가 되는 절을 발화하고/며 후행 행위를 하는 담화 상황은 화용상 설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다고’ 구문은 비문이 된다.²⁵⁾

3.2. ‘-라고’

3.2.1. 이제 피인용문이 의문문일 경우에 나타나는 의문형 어미 ‘-라’에 인용표지 ‘-고’가 결합된 형식인 ‘-라고’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²⁶⁾ ‘-라고’

위와 동시에 발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4) 그러나 ‘-다고’가 이유를 나타낼 때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거나 전달하는 경우는 선/후행절이 일인칭 주어어도 무방하다.

가. 돈이 없다고 나는 책을 {*안 산다, 안 샀다.}

나. 배가 고프다고 나는 {*짜증을 낸다. 짜증을 냈다.}

위 예들은 현재 시제어미에서는 ‘-다고’가 불가능하나 과거시제에서는 가능하다. 과거 상황에서는 선/후행절 주어가 객관화되어 일인칭 주어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발화를 인용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유로 삼는 것이 화용상 어색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5) ‘-다고’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선/후행절이 주어가 일인칭이면 비문이 된다(예: *나는 그림을 그린다고 붓을 산다, *나는 잠을 잔다고 방으로 들어간다.) 이런 현상 또한 문맥적 추론 상황을 고려할 때 화용상의 제약과 관련된다. 다만 ‘이유’에서와 같이 목적의 경우에도 회상이 전제되는 경우는 주어가 일인칭이어도 ‘-다고’가 제약되지 않는다.

26) ‘-다고’가 서술 명사에 결합되면 ‘-다고’는 ‘-라고’로 실현되는 바,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가 연결어미처럼 쓰이는 전형적인 구문은 다음과 같다.

- (18) 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엄마가 중국어 책을 사 주셨어.
나. 민호 먹으라고 엄마가 약을 꺼내 놓으셨대.

이 경우도 ‘-라고’가 이끄는 절은 발화되었거나 생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인용 구조로의 변화를 통해서 ‘-라고’의 의미 기능이 이해될 수 있다.

- (19) 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고/하며 엄마가 중국어 책을 사 주셨어.
나. 민호 먹으라고 하고/하며 엄마가 약을 꺼내 놓으셨대.

역시 (18)과 (19)는 의미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도 후행절은 선행절 발화 이후나 발화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화자의 후행절 행위는 선행절의 동기가 된다. 여기에 선/후행절 간에 추론되는 논리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문맥적 추론을 하면 (18)에서 ‘-라고’는 의도/목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후행절 주어의 행위는 선행절 행위를 이루기 위한 의도/목적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²⁷⁾

(19)의 ‘-라고’의 경우는 인용 구조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였으나 (20)에서 보듯이 모든 ‘-라고’ 구문이 인용 구조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 (20) 가. 꽃이 빨리 피라고 동생이 물을 듬뿍 주었다.
나. 야생동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주인이 철조망을 쳐 놓았다.

위 예문의 선행절은 후행절 화자에 의해 실제로 발화되었다고 볼 수 없

27) ‘-라고’가 의도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18 가), (18 나)가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 A: 엄마가 뭐 하려고 중국어 책을 사오셨니?
B: 엄마가 무슨 목적으로 약을 꺼내 놓으셨니?

다. 이 경우 선행절 내용은 발화되지 않은 화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용 구조로의 변환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를 통해 ‘-라고’는 인용 표지를 넘어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

(20)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라고’가 나타내는 의도/목적의 의미는 ‘-려고’ 등이 나타내는 선행절 주어의 직접적인 의도/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후행절 주어가 이루고자 하는 의도/목적인 것이다.

‘-라고’는 또한 인간 주어의 의도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쓰인다.

- (21) 가. 운동회 잘 하라고 날씨도 좋구나.
나. 낚시 나가지 말라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 경우 ‘-라고’ 구문은 인용 구조로 이해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를 통해서도 ‘-라고’ 자체가 연결어미적 용법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라고’는 의도/목적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후행절 주어의 의도/목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라고’가 나타내는 의도/목적이 선행절 주어가 나타내는 직접적인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2.2. ‘-라고’는 후행절 주어의 행위가 선행절 행위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 행위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의도/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려고’와는 다르다. ‘-려고’의 경우에는 그 의도/목적이 선행절 주어의 의도/목적이 되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라고’ 구문에서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일인칭으로서 동일하면 비문이 된다.

- (22) 가. *내가 가져가라고 (나는) 책을 골라 놓았다.
나. *선회가 마시라고 (선회가) 커피를 타 놓았다.

‘-라고’의 의미 기능이 기원적으로는 인용 구조가 전제될 수 있는 구조이

며 이 의미 기능도 여기에서 추론되어 나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라고’에서 ‘-라’가 기원적으로 명령형 어미라는 것을 고려하면 주어가 동일한 경우는 화용상 기원적으로 이런 인용 구조가 설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해된다. 명령은 타인에게 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문이 주어동일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²⁸⁾

‘-다고’도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나 ‘-라고’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고’의 경우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하며 선행절은 후행절 주어(=선행절 주어)의 의도/목적이 되나 ‘-라고’의 경우는 선/후행절의 주어가 상이하며 선행절은 선행절 주어(≠후행절 주어)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후행절 주어의 의도/목적이 된다.

‘-라고’는 문장형에서 제약을 보인다.

- (23) 가. 그 녀석 책 좀 사라고 돈 좀 보내 줘/줍시다.
나. 미자 기죽지 말라고 응원 좀 해라/하자.

위에서 보듯이 ‘-라고’는 명령과 청유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는 의도/목적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다고’가 명령과 청유에서 제약을 받는 것과 다르다. ‘-라고’ 구문에서는 후행절 주어의 행위가 선행절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되며 ‘-라고’가 나타내는 유일한 의미 기능은 의도/목적이다. ‘-라고’의 경우는 명령형 어미라는 ‘-라’의 기원적 성격상 ‘-다고’와 반대로 주어가 달라야 함을 요구한다. 명령이나 청유는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라고’ 구문에서 명령법과 청유법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이유가 이해된다.

28) 이 경우, 주어동일 제약은 선행절이 주어의 구체적인 명령일 경우로 한정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어동일 제약을 받지 않는다(예: 은희는 졸리지 말라고 커피를 다섯 잔이나 마셨다.).

3.3. ‘-자고’

3.3.1. ‘-자고’는 중화된 청유형 어미 ‘-자’에 ‘-고’가 결합된 형식이다.

- (24) 가. 진호가 뉴스를 보자고 텔레비전을 켜다.
나. 그는 올해부터 꽃을 가꾸자고 화단을 만들었다.

위의 예문 역시 후행의 인용동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표면상 인용 구조가 아니며 이 문장은 접속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자고’ 구문도 선행절은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므로 이들 어미 뒤에 ‘하고/하며’를 삽입하여 인용 구조로 바꾸어 볼 수가 있다.

- (25) 가. 진호가 뉴스를 보자고 하고/하며 텔레비전을 켜어.
나. 내가 올해부터 꽃을 가꾸자고 하고/하며 화단을 만들었지.

(24)와 (25)도 의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결국 전자가 후자와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음은 앞선 경우와 같다. 이들 문장에서 후행절은 결국 이 절의 화자가 피인용문이 청유 형식인 선행절 발화를 한 뒤 이어서 행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구조라는 점과 후행절은 선행절이 동기가 된다는 점, 두 절 간의 의미 관계는 논리적 추론에 의한다는 점을 근거로 ‘-라고’의 의미 관계를 문맥적으로 추론하면 이는 의도나 목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자고’가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고 할 때 ‘-려고’와 다르며 역시 인용 표시 ‘-다고, ‘-라고’가 갖는 의도/목적의 의미와는 다르다. 위의 경우는 ‘-자고’가 결합된 절이 발화된 경우로 설정되는 경우이나 항상 ‘-자고’가 이끄는 절이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 (26) 가. 민호는 자기가 승진하자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나. 미자는 자기가 먹자고 음식을 만들지 않아.

위 문장은 발화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인용 구조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행절은 후행절 주어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고려하면, ‘-자고’도 연결어미로 문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3.2. ‘-자고’에 의한 접속문은 주어가 동일해야 한다. 이는 ‘-자고’에서 ‘-자’가 청유형 어미라는 것을 고려하고 ‘-자고’는 ‘하-’가 인용동사로 존재하는 구조에서 기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된다.

한편 앞서 먼저 이 구문은 청유라는 장차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선행절에 형용사나 계사가 오기 힘들다.

- (27) 가. *나는 우등생이자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공부를 했다.
나. *우리는 양식 있는 한국인이자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 (28) 가. *동수는 이제부터 부지런하자고 일찍 일어난다.
나. *성실한 학생이자고 동철이는 열심히 공부한다.

원래 형용사나 계사는 원칙적으로는 청유나 명령의 구문에서 쓰일 수 없다. ‘-자고’에서 ‘-자’가 기원적으로 청유형어미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이 왜 ‘-자고’에서 제약되는지 이해될 수 있다.²⁹⁾³⁰⁾

3.4. ‘-냐고’

3.4.1. ‘-냐고’가 접속문으로 쓰이는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의 경우다.

29) 그러나 ‘-자고’ 구문이 수사의문문이나 부정문일 경우 ‘-자고’가 형용사에 결합될 수 있다(예: 나 좋아하고 이라는 게 아니야/이러는 거냐?, 동수가 자기 편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야/그러는 거야?). ‘-냐고’가 접속어미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형용사나 계사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

30) ‘-라고’가 접속어미로 쓰일 때 ‘-라고’도 형용사나 계사를 취하지 못한다.

(29) 가. 기영이는 누가 더 오겠냐고 차를 출발시켰다.

나. 엄마는 이 시간에 동수가 밥을 먹겠냐고 식탁을 치워 버렸다.

위의 ‘-냐고’ 구문도 표면상 인용동사를 갖지 않으나 ‘-냐고’에 이끌리는 절이 발화된 문장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9)는 인용동사를 가진 문장과 비교될 수 있다.

(30) 가. 누가 더 오겠냐고 하고/하며 기영이가 차를 출발시켰다.

나. 이 시간에 동수가 밥을 먹겠냐고 하고/하며 엄마가 식탁을 치워 버렸다.

(29)와 (30)은 의미상에서 별 차이가 없다. 피인용절이 (30 가)는 판정의문문, (30 나)는 설명의문문 형식인 바, 화자는 인용문으로 이해되는 문장을 발화하고 난 뒤 후행문의 행위를 수행한다. 또한 여기서 후행절 행위는 선행의문 발화가 동기가 되어 나타난 결과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의문스러워하는 내용 제시 후, 의문의 동기에서 기인하는 행동을 제시하는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 기초한 문맥적 추론을 통해 (30)에서 ‘-냐고’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이유 관계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2. (29)와 (30)은 구조가 다르며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근거로 (29)에서 ‘-냐고’의 범주적 성격과 이의 의미 기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냐고’ 구문이 인용 구조로 분석되지 않는 예들은 ‘-냐고’가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적 의미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31) 가. [?]언제 비가 왔냐고 날씨가 화창하다.

나. [?]역시 여름 날씨가 어디 가겠냐고 날씨가 폭폭 쨌다.

이들 문장은 다음에서 보듯이 ‘-냐고’가 이끄는 절이 발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32) 가. *언제 비가 왔냐고 하고/하며 날씨가 화창하네.

나. *역시 여름 날씨가 어디 가겠냐고 하고/하며 날씨가 폭폭 쬔다.

인용동사가 개입되면 (31)은 비문이 된다. 이는 (31)을 인용동사가 생략된 문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는 (31)에서 ‘-냐고’가 연결어미적 기능을 가짐을 의미한다. (29)에서 ‘-냐고’가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는 ‘-냐고’가 문맥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의미는 아니다.

피인용문 발화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인 (30)의 경우, ‘-냐고’가 이끄는 절은 피인용문의 구체적인 발화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추상적인 발화로 상정될 수 있다. 그리고 (31)에서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는 이 추상적으로 상정되는 절과 후행절 간에 성립되는 관계다. (31 가)는 의문 형식으로 선행절에 제시되어 반어적 의미로 해석되는 비가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후행절은 선행절의 상태를 고려할 때 의외적인 사태가 나타난 경우다. 또한 (31 나)는 수사의문문 형식으로 전달되는 (상황이) 여름 날씨라는 것을 고려하면 후행절 사태는 당연함을 나타낸다. 즉, 선행절이 전달하는 의미는 후행절의 사태가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냐고’는 후행절 사태에 대한 의외성이나 정당성을 드러내는 경우에도 쓰이는 바, 이들 모두의 경우 선행절은 후행절 사태를 고려할 때 제기되는 의문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냐고’에 의한 선/후행절 간의 의미 관계는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역시 ‘-냐고’가 그 자체로는 연결어미로서 내재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선/후행절간의 의미 관계가 문맥적 추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냐고’는 주어에 대한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냐고’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4. 결론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등 간접인용 표지들의 연결어미적 용법과 의미 기능을 밝히고 이들이 이루는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다. 이들은 간접인용문에 쓰이는 전형적인 인용 표지들이지만 이들이 인용동사를 취하지 않고 연결어미처럼 후행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들 표지 중 사전에 연결어미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다고’뿐이다. 그간에 이들 표지들이 갖는 연결어미적 기능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다고’의 경우만 그 의미 기능과 관련된 간결한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표지들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간접 인용표지가 어떤 구조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고’는 중세국어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인용 구문 중 인용동사 앞에 오는, 근원적으로는 대동사적 기능에서 기원하는 인용적 성격의 형식동사 ‘흐-’에 결합된 연결어미 ‘-고’에 기원을 두며, 이는 피인용문의 각 문장형 종결어미가 중화된 종결어미 ‘-다’, ‘-냐’, ‘-라’, ‘-냐’와 융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표지들은 그 기원적인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내재적으로는 접속어미적 기능을 갖지 않는 형식이다. 이들은 피인용절을 이끌고 후행하는 인용동사를 도입하여 인용문을 이루는 것이 주기능이다. 그러나 이들 표지들은 이들이 이끄는 절 뒤에 인용동사를 도입하지 않고 다른 절을 후행시키는 용법도 갖는다.

여기서는 간접인용 표지가 이루는 이런 구문을 기본적으로 접속문이라고 보고, 이 경우 ‘-다고’, ‘-냐고’, ‘-라고’, ‘-자고’ 등은 연결어미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비록 이들이 인용동사를 수반하지 않고 후행절과 연결되는 구문들이 인용동사 ‘하-’의 활용형 ‘하고’, ‘하며’ 등을 삽입한 인용 구조와 관련시켜 이해될 수는 있으나 전자와 후자는 의미가 완전히 같지 않고 이들 표지들이 쓰인 구문이 모두 ‘하-’를 가진 인용문으로 환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본고에서는 간접인용 표지들이 연결어미적으로 사용될 때 이들의 의미 기능은 문맥적 추론에 의해 파악된다고 주장하고 각 표지들의 연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고’는 이유, 의도/목적, 양보, ‘-라고’는 의지/목적, ‘-자고’는 의도/목적, ‘-냐고’는 이유 등의 의미 기능을 주로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표지들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 보이는 여러 가지 통사적, 의미적 제약과 특징도 본고에서 논의되었다. 이들은 기원적으로 피인용절의 종결어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참고문헌

- 강인선(1977), 「15세기 국어의 인용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봉천(2001), 「인용표지의 발달과 인용문의 변화」,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휘(2012), 「직접인용표지 “하고”의 정립」, 『시학과 언어학』 22, 시학과언어학회, 101-124면.
- 김수태(1994), 「우리말 인용표지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239-271면.
- 김주식 역(2006), 『문법화의 본질』, 한국문화사.
- 김희경(2011), 「간접 인용문의 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51-82면.
- 김희진(1998), 「간접인용구문의 녹아붙은 꼴 연구」, 『국어문법의 탐구』 IV, 태학사, 375-421면.
- 남기심(1973), 『국어완형보문법연구』, 탑출판사, 1973.
- 박재연(2012), 「인용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 방법」, 『한국어의미학』 39, 한국어의미학회, 205-229면.
- 방운규(1995), 「간접 인용마디의 ‘-고 하-’ 구성에 대하여」, 『한말연구』 1, 한말연구학회, 139-154면.
- 신선경(1986), 「인용문의 구조와 유형 분류」, 국어연구 73.
- 유현경(2002), 「어미 ‘-다고’의 의미와 문법」,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99-122면.
- 이금희(2006),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국어학』 48, 국어학회, 238-258면.
-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지양(1993),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창덕(1993), 「현대 국어 인용 체계 연구」, 『텍스트언어학』 6,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55-299면.
- 이필영(1993), 『국어의 인용구문 연구』, 탑출판사.
- 채숙희(2011),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loss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tee, B. H.(1973), *The Syntax and Semantics of Quotation*, Kiparsky P. and S. Anderson(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410-418면.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 Wierbicka, A.(1974), *The Semantics of direct and indirect discourse*, *Papers in Linguistics* 7.

A Study on the Connective Meanings of Quotation Markers in Korean

Koo Jong-nam

In indirect quotation '*-go*'(-고) is used as a quotation marker. This marker '*-go*' is originated from the connective ending '*-go*' which attaches to the quotation verb '*ha-*'. Indirect quotation marker '*-go*' is fused with neutralized sentence final ending '*-da*', '*-nya*', '*-ra*', '*-ja*' (declarative, interrogative, imperative, suggestive sentence final ending respectively). So '*-dago*', '*-nyago*', '*-rago*', '*-jago*' are used in indirect quotation according to the sentence type of cited sentence.

Not only are these markers used as indirect quotation markers, but also these are used as connective endings. These quotation markers do not have intrinsic meanings as connective endings. So the meanings of these markers are determined by the context-induced inference in subordinate conjoined sentences. In this paper precise meanings of these quotation markers(''*-dago*', '*-nyago*', '*-rago*', '*-jago*'') are elucid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joined sentences which have indirect quotation markers as connective e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 *-go*(-고), *-dago*(-다고), *-nyago*(-냐고), *-rago*(-라고),
-jago(-ја고), quotation verb, sentence final ending,
indirect quotation marker, connective ending, context-

induced inference, neutralized, intrinsic meaning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